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3월 2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 위원 김영준)는 지난 26일 오후 4시30분 강북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이백균 의원,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 7인과 구청 디자인건축과장, 건설관리과 전문건설업 담당, 재무과 계약담당, 일자리지원과 담당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사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회와 집행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관내업체가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을 듣고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박문수 위원장은 “강북구 관공사는 관내업체가 하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자리를 마련했으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간담회 취지에 대한 인사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전문건설업 대표들은 입찰관련 지역제한 문제, 하도급관련 애로사항, 소규모 설비업자의 하자관리문제, 업체 상호도용 문

제, 건물 철거관련 문제점 등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구청에서는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자재창고를 지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창고 건립에 대한 건의사항은 부지 확보문제와 예산이 수반되는 등 현실적

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하고, 관공공사라도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덧붙여서 박문수 위원장은 “강북구 관내 관공사는 가능하면 관내 전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는 업체 대표들도 지역 구의원에게 자주 연락을 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6일 강북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동북일보 5면

강북구의회, 민원특위,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전문건설업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창고 지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건의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 위원 김영준)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강북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이백균의원,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 7인과 구청 디자인 건축과장, 건설관리과 전문건설업 담당, 재무과 계약담당, 일자리지원과 담당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사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회와 집행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관내업체가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을 듣고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박문수 위원장은 “강북구 관공사는 관내업체가 하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자리를 마련했으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 오늘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주겠다는 답은 하지 못한다. 하나 현장에서



▲ 강북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열린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장면.

시행하는 입장에서 개선점을 듣고 현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건설업 대표들은 입찰관련 지역제한 문제, 하도급관련 애로사항, 소규모 설비업자의 하자관리문제, 업체 상호도용 문제, 건물 철거관련 문제점 등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구청에서는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자재창고를 지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창고 건립에 대한 건의사항은 부지 확보문제와 예산이 수반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하고, 관공공사라도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또한, 적게는 2-3만 원에서 50-60만 원대의 공사를 하는 영세업자들의 경우, 허가증,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협회 결성이 되어 연결고리가 있다면 좋겠으나, 워낙 영세업이다 보니 수월치 않고, 이로 인해 무허가자가 불법적으로 타인의 상호를 도용하여 공사를 하고 도망가는 등 불법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박문수 위원장은 “강북구 관내 관공사는 가능하면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는 업체들도 지역 의원에게 자주 연락을 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박문수 기자 je1718@naver.com)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강북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들과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 위원 김영준)는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 강북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이백균 의원,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 7인과 구청 디자인건축과장, 건설관리과 전문건설업 담당, 재무과 계약담당, 일자리지원과 담당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사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회와 집행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관내업체가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을 청취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문수 위원장은 "강북구 관급공사는 관내 업체가 하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자리를 마련했으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고 전문건설업 대표들은 임찰관련 지역 제한 문제, 하도급관련 애로사항, 소규모 설비업자의 하자관리문제, 업체 상호도용 문제, 건물 철거관련 문제점 등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구청에서는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자체창고를 지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특위 위원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창고 건립에 대한 건의사항은 부지 확보문제와 예산이 수반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하고, 관급공사라도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덧붙여서 박문수 위원장은 "강북구 관내 관급공사는 가능하면 관내 전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는 업체 대표들도 지역 구의원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 위원 김영준)는 지난 달 26일 오후 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이백균 의원,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 7인과 구청 디자인건축과장, 건설관리과 전문건설업 담당, 재무과 계약담당, 일자리지원과 담당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전문건설업체 대표들로부터 사업현장에서

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회와 집행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관내업체가 원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을 듣고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날 박문수 위원장은 "강북구 관급공사는 관내업체가 하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자리를 마련했으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달라"고 간담회 취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에 전문건설업 대표들은 임

찰관련 지역제한 문제, 하도급관련 애로사항, 소규모 설비업자의 하자관리문제, 업체 상호도용 문제, 건물 철거관련 문제점 등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구청에서는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자체창고를 지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건의했다.

민원처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창고 건립에 대한 건의사항은 부지 확보문제와 예산이 수반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하고, 관급공사라도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어 박문수 위원장은 "강북구 관내 관급공사는 가능하면 관내 전문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는 업체 대표들도 지역 구의원에게 자주 연락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유영일 기자